

성보관리 정신문화 '맥 잇기'

교불련 24일 '불교유산 보존...' 심포지엄 논문요약



◇ 아래턱과 입, 코에 마구 덧붙여진 시멘트 덧칠로 인해 원형의 아름다움이 손실돼 국보지정에서 제외된 경주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1천6백여년 동안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아 전승해 온 불교문화유산. 골동품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정신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전승방법은 어떤 것일까.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류종민)가 부처님오신날과 97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해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주제로 24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갖는다. 발표에 앞서 각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이인자교수(경기대)는 '한국인의 정서와 불교문화유산'에서 "사찰 기둥과 주춧돌, 창살문, 축대 등은 자연과 인공이 잘 조화된 아름다운 극치"라며 "서구사상과 차별화된 한국인의 자연조화사상이 불교문화유산 속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 우리 정서와 정신문화의 맥을 이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형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

승에서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 박물관장)는 불교미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석조물에 대한 보존책으로 △원위치에서의 원형보존 △보호각 설치 및 배수로 등 기초시설 확보 △전문가에 의한 보수 △폐사지 복원 등을 제시했다. "문화유산의 전승은 문화재 조성기술의 연마에서 비롯된다"는 정교수는 전승의 전제 조건으로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명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무형 불교문화유산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 안 돼 상당수가 전승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불교역사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양을 지니고 있는 법패와 작법을 보존 전승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교수는 △행자와 정에서의 법패와 작법 교육 △불교 교육기관에서의 불교예술교육 △중단차원의 불교예술단 육성 △사찰

- 이인자 "불교유산 자연-인공 조화 극치"
- 정영호 "석조물 현위치 원형보존해야"
- 박범훈 "행자에 법패·작법교육 의무화"
- 황진수 "정부 문화재정책 일관성 절실"

육성 △기능보유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위상 정착 △사회교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을 제안했다. "무형 불교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문제"에서 박범훈교수(중앙대 음대)는 "작법(법고)에서 유래한 승무의 경우 보유자가 두 명이나 지정된 반면 그 모체인 법고는 한

측대 활성화를 통한 공연의 확대 △불교문화재보호에 관한 종법 제정 △전문공연장 건립 등을 제시했다. 박교수는 "불교음악과 무용이 종교적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국악 등과의 교류를 통해 이 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불교문화창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황진수교수(한성대 행정학과)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행정체계의 재정립"에서 "문화재 보호에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논리에 밀리고 있다"며 정부의 문화정책을 꼬집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성의 결여를 들었다. 황교수는 문화유산의 해와 관련 "행사보다는 현실에 맞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역사도시의 자연총체보존법 제정 등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윤기석 기자

불심시집 <87>

거울 속을 걷는 사람

大野東溪 큰 바다 동해로 끝나고
(대야동명진)
層峰北極遙 층층의 봉우리 북극까지 닿다
(층봉북극요)
俯看城下水 굽어보는 성 아래 물에는
(부간성하수)
人渡鏡中橋 거울 속 다리를 건너는 사람
(인도경중교)
(인도경중교)

위 시는 천경대사(天鏡·1691~1770)의 '낙민루(樂民樓)'라는 시이다. 대사의 이름은 해원(海淵)이고, 호는 함월(涵月)이고, 천경은 자이다. 속성은 이씨로 조선왕조의 후손이다.

대사의 시는 그의 문집인 <천경집>에 201권이 수록되어 있는데 서경적 시가 많으면서도 그 시적이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는 소탈함에서 승 속의 거리를 뛰어넘은 소박함이 가득하다. 위 시도 그러한 면이 보이는 담백한 소품이다.

제목이 낙민루이니 누대에 올라서 지은 시일 것이나, 누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없다. 그러면서도 이 누대의 초초한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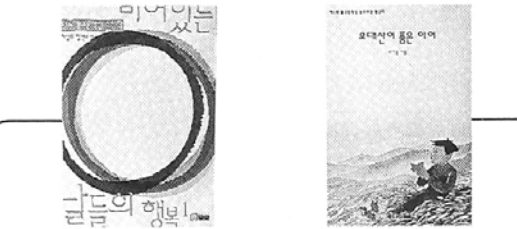
바다까지 닿도록 끝없이 펼쳐진 들, 하늘까지 먼 봉우리, 성 아래로 펼쳐진 수면, 그 수면 위에 점 하나로 비쳐져 있는 나그네, 무한의 수평과 수직으로 이어진 공간으로 시선을 자유로이 이동시키고는, 마침내 물그림자로 비쳐진 다리 위의 한 사람이다. 모든 초점을 맞추어 정지시키고 있다. 굽어본다는 한 구절에서 이 낙민루는 수면에 정지된 이 한 점의 위

에 있음을 알게 한다. 다시 이 시를 선으로 상상해 보자. 첫 구에서 큰 물이다 하

였으니 이 선은 수평의 가로지름이다. 이 선이 수평선의 끝까지 가서 다한다. 다하다의 한 단어가 이 선이 갈 수 있는 무한의 끝을 암시한다. 다음 이어지는 구는 층층이다. 층층으로 솟은 봉우리이니 수직선이다. 이 선 또한 북극까지 닿았으니 수직의 무한이다. 이렇듯 기승의 여유림이 수평 수직의 교차로써 무한의 외연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 구에서 굽어본다 하였으니 이 또한 수직으로의 선이고, 다음 구가 다리 위를 지나는 사람이니 이는 수평의 횡선이다. 이렇듯 이 두 구가 다시 종횡의 교차이다. 한 편의 시가 상하 좌우의 균형잡힌 구도로 이루어졌다.

상하 좌우 어디에도 매임이 없는 이 자유로운 사상, 공간을 무한으로 확대하다가 거울 같은 수면의 한 점으로 응축시키고 만다. 무한의 확대가 동시에 극치라면, 다리 위의 한 점으로 압축한 것은 정의 극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 정서란 여차피 동보다는 정의 가라앉음이라 한다면, 이 시는 이렇듯 정적으로의 휘감기 벗었다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거울 속의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바로 이 시의 제목인 낙민의 대표인 것처럼 한가롭다. 이준천 <동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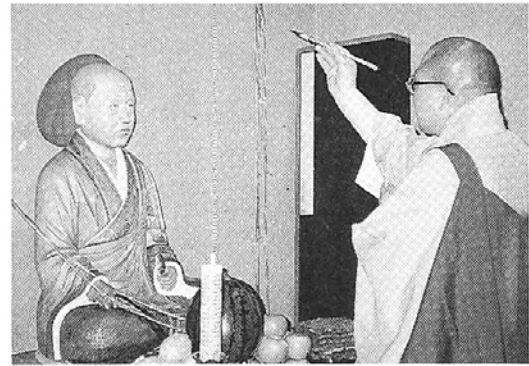
이상우씨-비어있는... 이가을씨-오대산이...

불교문학상 당선작 '단행본으로'

'문학의 해'를 기념해 지난해 조계종이 주최했던 제1회 불교문학현상공모의 장편소설과 동화 당선작이 책으로 묶여졌다. 이상우씨의 장편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전2권·말말판)에는 십여년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작가의 체험을 통해 참된 삶의 화두를 무수유로 풀어 나간다. 화자이자 주인공인 나(강선생)는 도시와 잘못된 교육 관행에 지친 교사. 강선생은 이상향 부평농장에서 풍도사에 살았던 진당이라는 법명을 가진 일꾼 조씨를 보며 참된 무수유의 삶을 배우게 된다. 농장에서 만난 최선생, 농장주 김사장, 일꾼 조종환 등의 사람들과 쌓게사 품보스님과의 인연을 통해 끈질긴 업보의 끈을 묘사하고 있다.

<빛을 가진 아이들> 등의 동화를 집필해온 이가을씨의 동화 <오대산이 품은 아이>(조계종출판사)는 불전을 흠치는 김동이를 부처님께 귀의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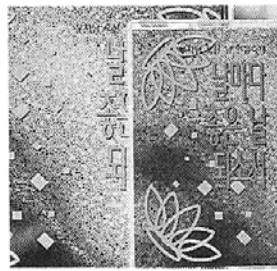
까지의 과정이 삽화와 함께 그려졌다. 고아원에서 도망쳐 오대산 한 일지에 머무르게 된 길동이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가슴아파하며 병을 앓는 이쪽거사. 방황하던 길동이 돌아왔을 때 그는 가을이 짙게 뻗 오대산을 산책하며 길동이를게 가슴 속에 품은 선재동자 얘기를 들려준다. 길동은 주지스님과 이쪽거사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진정한 불자로 태어나 선재라는 이름도 얻게 된다.



초의스님성상 봉안 초의선원(원장 용운)은 지난 11일 '5월의 문화인물' 초의스님성상을 봉안했다. 한국 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스님의 선지를 받들고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이번 봉안식에는 용운스님이 집전을 맡고 6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했다. 초의스님상은 박찬수(목어박물관장)씨가 실물크기로 조성했다. 초의선원은 봉안식과 함께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와 무료 차 시음회도 가졌다.

봉축주제가 '오늘은 좋은날' CD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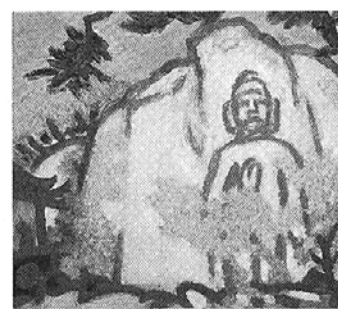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선정한 봉축행사 주제가 '오늘은 좋은 날'(황학현 이종만 작사 이종만 작곡)과 '길 떠나자'(황학현 작사 이종만 작곡)가 들어있는 CD와 카세트테이프 '날마다 좋은 날'이 나왔다. '오늘은 좋은 날'과 '길 떠나자'는 흥겨운 리듬과 경쾌한 곡조로 누구나 따라부르기 쉽게 만들어져 연등축제에 큰 호응을 받았던 노래로 황성호씨가 불렀다. 찬불가 전문제작사 '좋은 벗 종경소리'가 만든 이번 CD와 테이프에는 이 2곡과 함께 '부처님이 오셨네' '보시하는 마음' 등 총 8곡이 들어 있다. (02)730-7525



"극락으로 가는 풍광을 보자"

박운성씨 풍경화展 31일까지 부산 영동화랑

정물미숙적 미감으로 주홍색 필선이 뼈대를 이룬 독특한 풍경화전 시회가 오는 31일까지 부산 영동화랑에서 열린다. 박운성씨가 '우리의 자연과 문화'를 주제로 열고 있는 한 이번 개인전에는 경주 남산 병풍, 부처바위 등 우리 산하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풍경작품 40여점이 선보인다. 미술평론가 윤영식씨는 "근원 체험에 의해 열려진 밝고 투명한 심안으로 이 강토의 모습을 형상화해 '극락'으로의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한다. (051)803-8181



◇박운성작 '경주남산(백운곡 미애물)'

문화소식

불교음악 한마당

소리샘예술기획(대표 묘심스님)은 6월 3일 저녁 7시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불교음악한마당을 펼친다. 봉은사, 구룡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금강선원 등 8개 사찰 합창단과 테너 조종상, 바리톤 배천중, 소프라노 오승희, 연정숙, 메조소프라노 손아찌 등이 참여해 불교가곡, 한국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을 연주한다. (02)591-7848

디딤무용단 '흠' 공연

국수호 디딤무용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갖는다.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의 전체 테마는 들이림과 내림을 주제로 한 '흠(吸)'. (02)272-2153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부천 석왕사 회주 고산 주지 영담 대종일동 ▶ 부천시 원미동 산 2912 전화 : 032/663-7771	백련사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주지 이철산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3 전화 : 303-0024~5	청소년수련원 신흥사 주지 오성일 신도회 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전화 : 0339/57-2695, 3916	관음사 주지 박종하 신도회장 유무심화 대종일동 ▶ 서울 관악구 남현동 519-3 전화 : 02/582-8609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회주 송월주 대종일동 ▶ 서울 광진구 구의동 산9 전화 : 02/444-4321, 7215 부설 관인 영화유치원 전화 : 02/453-5149
金剛禪院 方背布教院 소리샘예술기획 대표 송묘심 ▶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77-14 전화 : 596-7162 전승 : 596-7163	지장도량 영월암 주지 정무 대종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이천시 관교동 438번지 전화 : 0336/635-3457	염불암 주지 성수 신도회장 김일심원 신도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7 전화 : 0343/71-2300, 3680	한국불교대교종 백련사 포교원 원장 박지상 신도일동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2-16 전화 : 02/547-8268, 8269	수안사 주지 세민 대종일동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8-12 전화 : 02/587-4677
수국사 주지 한자용 신도회명예회장 한선심화 합창단총무 김찬희 신도회장 김자비심의 대종일동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 전화 : 356-2001 전승 : 356-2002	두타산 삼화사 주지 慈光 李遠行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전화 : 0394/34-7661~2, 8313 전승 : 0394/34-7546	봉화산 법만사 주지 전범만 법연회·신도회 일동 ▶ 서울 중랑구 중화1동 274-63 전화 : 433-6591~2	망해암 주지 범두 봉사회원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산19 전화 : 0343/74-5557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주지 신법인 총무 서대원 대종일동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전화 : 0417/61-3545, 62-5332 전승 : 0417/556-1425